



2024

#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 **사랑의 인사**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QR코드) →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양**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기도** 말은이

■ **성경봉독** 누가복음 15:20-24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 ■ 말씀 나눔

### 화목한 가정의 3가지 조건

누구에게나 ‘집(Home)’은 삶의 중심이요 안식처입니다. 집에 거할 때 평안과 안정을 누립니다. 그렇기에 본래 있어야 할 곳,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가정(집)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하면 어떤 일을 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적이면 우리 일상도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 보다 가족의 화목은 중요합니다.

#### 1. [내편의식]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무조건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내 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끌어안으며 끝까지 아들을 지지하며 아들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아들에게 “내편 의식”을 심어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깨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 2. [시비를 가림]

오늘 말씀에 나온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비난하고 심지어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도 비난하며 시비를 가립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도 서로 지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앞서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마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보다도 응원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시비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지지해줄 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 3. [가장이신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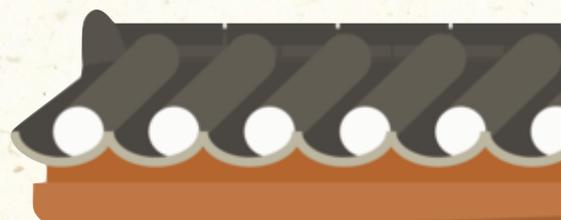
화목한 가정의 출발점은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은혜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 되어주실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가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실 때 서로를 끝까지 지지하고 시비를 가리기보다 품어주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 **기도** 말은이

■ **주기도문** 다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큰숲드림교회  
Great Forest Dream Church



# 2024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 사랑의 인사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송가 QR코드) →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양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기도 말은이

■ 성경봉독 에베소서 5:22-28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 말씀 나눔 | 좋은 가족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 초보가족

가족이란 그냥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처음에는 다 초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 성숙한 가족

1.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권위를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 남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자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는 부모를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4. 부모: 부모다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심각한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 상처를 주더라도 속히 뉘우치고 사과해야 합니다.

### 내가 주님께 받은 대로

좋은 가족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도 말은이

■ 주기도문 | 다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큰숲드림교회  
Great Forest Dream Church

2025

#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 사랑의인사 |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송가 QR코드)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양 |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기도 | 말은이

■ 성경봉독 | 빌립보서 4:11-13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 말씀 나눔 |

## 감사의 공식

### 성숙한 믿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단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자족의 능력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라는 것은 ‘훈련했다’라는 말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이 키워지듯 감사의 근육도 훈련하면 키워집니다. 삶의 매 순간을 감사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삶으로 바뀝니다.

### 욕심을 내려놓음

“은혜 ÷ 욕구 = 감사”, 이것이 감사의 공식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욕심이 더 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으면 감사도 커지게 됩니다.

### 비교의식을 버림

비교의식은 감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타인의 삶이 나의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평가에 간혀 살지 말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 기도 | 말은이

■ 주기도문 | 다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큰숲드림교회  
Great Forest Dream Church